

법무부 산하의 특성화 학교인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적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권 혜 인* · 이 화 식**

이 연구는 '소년원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예술프로그램의 성격과 목표 연구(이화식, 2011)'의 후속 연구로 법무부 산하의 특성화 학교인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음악과 교육과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예술과 교육과정의 영역을 크게 미술, 음악, 무용, 연극이라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그 중에서도 이번 연구는 '음악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중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성 요소를 추출하고 이러한 요소를 함양할 수 있도록 음악과 내용 체계를 체험, 표현, 이해라는 대영역으로 나누었다. 다시 체험의 하부 영역을 나, 우리, 사회의 범주로 제시하였고, 표현의 하부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으로 했으며, 이해의 하부 영역은 음악의 요소와 원리 이해, 음악 문화의 이해, 음악 감상으로 구분하였다.

※ 주제어: 고봉중·고등학교, 인성교육, 음악과 교육과정, 법교과 학습.

차 례

I. 서 론

II. 인성도야를 위한 예술교육의 이해

1. 고봉중·고등학교의 특성 이해
2. 인성도야를 위한 예술교육의 성격과 목적
3. 인성과 구성 요소

III. 인성교육을 위한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1. 체험 영역
2. 표현 영역
3. 이해 영역

IV. 결 론

* 한성여자중학교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교신저자 cremt@hanmail.net

I. 서론

법무부는 비행청소년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특성화 학교를 10개소, 대안 교육센터를 6개소 운영하고 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그 중에서 고봉중·고등학교는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그리고 이 학교는 소년보호교육기관으로써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과 함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중 음악교과를 비행청소년 인성교육과 연관 지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예술교육이 인성교육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공통점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음악 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개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全人)적 인간이 되는데 기여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61).

음악이 윤리적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는 동서고금을 통해 이어져왔다. 음악은 인간 영혼의 조화라고 주장한 서양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n)은 피타고라스 음악관을 기반으로 ‘에토스론(ethos)’을 펼쳤는데, 이는 음악이 인간 성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윤리적 가치를 가진 음악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홍정수, 2008: 150). 이에 따르면 음악은 영혼에 침투하여 영혼의 균형과 내적 조화를 회복시키며 부정적인 감정도 제거할 수 있다(Grout et al., 2006: 36). 이 때문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보에티우스(Boethius) 등의 철학자들은 마음을 단련하는 데 음악 교과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자유학에 7과목에 속한 음악은 중세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기독교를 보급하고 신성한 아름다움을 연상하게 하는 목적으로 장려되기도 하였다. 한편, 동양(東洋) 유가(儒家)에서는 우주 만물의 조화를 위한 사상으로 예악론(禮樂論)을 따른다. 예(禮)와 악(樂)을 통해 인간은 완성되며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예악론(禮樂論)에서는 덕을 갖춘 군자가 제정한 음악을 덕음(德音)이라 부르며

음악을 내면적 인격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감정이 음악을 만들고 음악으로부터 인간이 영향받는다 본 유가에서 음악은 감정 순화에 영향을 주며 선한 음악을 통해 도덕적 수양, 정치적 교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찍이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를 숭상한 우리나라 역시 예악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이해하는 데 예악론은 사상적 배경이 되어준다(권덕원 외, 2008: 87-92).

현대에서 인성과 음악(音樂) 관계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의와 설명이 주를 이룬 과거와 다르게 학제를 넘나들며 다른 예술과 학문 영역에서 보다 상세하게 연구되어진다. 이러한 면에서 연구자는 마쓰이 도시카즈(松井紀和)가 정의한 “음악이 갖고 있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활용하여 심신의 장애를 회복하고 기능을 유지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의도적, 계획적으로 음악을 활용하는 치료 기법, 음악 치료(Music Therapy)”를 주목하였다(村井靖兒, 1995: 15). 음악 치료는 주관성, 개인성, 창의성, 미의 요소를 가진 예술(藝術)과 객관성, 보편성, 재현성, 진리의 요소를 가진 과학(科學)의 통합이며, 동시에 감정 이입, 친밀감,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를 가진 교류(交流)적 과정이다(Bruscia, 1998a: 30-31). 음악 치료는 다양한 실험과 임상 연구를 통해 여러 형태의 음악 효과를 연구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그 효과를 장애인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아이들은 의사소통, 인지문제, 감각 운동, 지각 운동, 사회성, 감정,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음악 치료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치료사들은 음악 경험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키고 특수한 행동을 변화시키며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고 새로운 기능을 가르친다(Hanser, 1999: 2-3). 연구자는 이처럼 음악의 효과가 ‘음악 치료’ 분야로 의학에 활용되는 것에 착안하여 비행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에도 음악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비행청소년이 가지는 반사회적 행동, 품행장애, 부적응 등의 다양한 정서적 문제들은 사실상 음악 치료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음악교과가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에 미치는 효과는 이미 잘 연구되어진 바이나 비행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은 연구가 미비한 수준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음악치료에서 임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론과 실제, 음악교육에서 연구되어진 인성 형성 연

구의 이론과 실제를 일부 수용하되,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악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도야와 교과교육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까닭에 고봉중·고등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은 일반학교의 예술교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 소년원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평가에 하나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소년원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예술프로그램의 성격과 목표 연구(이화식, 2011)'의 후속 연구로써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봉중·고등학교의 예술과 교육과정을 제시할 것이며, 예술프로그램의 영역을 크게 미술, 음악, 연극, 무용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음악영역의 교육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II. 인성도야를 위한 예술교육의 이해

본 연구의 핵심인 인성도야를 위한 음악과 교육과정을 논하기 위해서 먼저 고봉중·고등학교의 특성과 선행연구(이화식, 2011)에서 밝힌 인성도야를 위한 예술교육의 성격과 목적을 확인하고, 인성의 주된 구성 요소를 밝혀 본 연구의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1. 고봉중·고등학교의 특성 이해

소년원학교는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소년원학교는 법률에 의한 정규학교로 공식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¹⁾,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사 자격증

1)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을 가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크게 4가지²⁾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 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둘째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방법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셋째는 상담·심리치료, 심성훈련과 체험을 중심으로 인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넷째는 신체질환이나 약물남용자, 정신 및 발달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치료·재활과정을 운영한다(이화식, 2011: 191 재인용).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안교육센터라는 복수 명칭을 사용하며³⁾, 안산, 부산, 광주, 청주, 대전, 창원에 6개가 개관,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설립 배경은 범죄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 내 처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부적응학생 등 위기청소년과 기소유예대상자 등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검찰청 및 법원서 의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원인을 진단한다. 또한 지역사회 학교에서 요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진로지도, 법교육을 실시하여 보호처분 대상자 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자교육을 실시한다(법무부, 20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2항).

이 중에서 특히 고봉중·고등학교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송천정보통신학교는 특성화학교로 지정되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⁴⁾을 운영한다. 또한 이들 학교는 소년원학교 중 가장 많은 수의 학생과 장기 보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보호·교육한다(이화식, 2011: 191 재인용). 그 중에서도 고봉중·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

2) 소년법 제4조(호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3) 소년심판규칙 제7조(소년 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 ① 검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소년법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 때문에 ‘고봉중·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와 ‘송천정보통신학교’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학교에서는 감호·교육되는 동안 학업의 중단이 없도록 단기 수용·보호 대상자인 8호 처분자는 특성화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이 사회에서의 일반학교 출석일수로 인정⁵⁾되어 학업의 중단이 없도록 고려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장기 처분자에 해당되는 9, 10호 처분자는 특성화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으로 인정되어 특성화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원하면 전적학교에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 발급을 요청하여 특성화학교장이 전적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전수⁶⁾하도록 배려하고 있다(이화식, 2011: 191 재인용).

2. 인성도야를 위한 예술교육의 성격과 목적

고봉중·고등학교에서의 예술 교과 교육은 주위의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를 세심하게 관찰하거나 바로 꿰뚫어 봄으로써 그 본질과 미적 특성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심미적 태도를 길러 준다. 또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학습자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 개성적인 표현 등을 바탕으로 시각과 청각 문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 공동체 의식 등을 갖추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발하고

5)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6) 소년원은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 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 수업과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문화관광부, 2001: 545).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이화식, 2011).

이러한 예술적 능력과 태도는 학습자의 감성적, 지성적, 정서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예술을 통하여 체험하고 표현하고 감상하는 유기적인 학습 경험을 통하여 개성적,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또한, 시각과 청각 문화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심미적인 태도를 길러 예술 문화의 계승과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발할 수 있는 주체적 인간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예술의 체험, 표현, 이해 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 성격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화식, 2011: 202-203).

인성 교육을 위한 예술 교육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속에서 미적 감수성과 미의식의 체험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정보, 환경, 생명 등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둘째, 다양한 동기 유발을 통해 표현 의지를 북돋워주고 주제, 표현 방법, 표현 요소 등의 체계적인 탐색과 자기 주도적인 표현 활동으로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셋째, 예술 작품을 비롯하여 시각, 청각 문화 활동에 대한 미적 반응과 판단을 토대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 공동체 의식을 갖추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발하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데 공헌하게 한다.

다음은 목표로 인성교육을 위한 예술교육이 가져야 할 성과로 목표와 그 방향을 같이하며 예술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요소를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 ‘예술 문화의 향수 능력과 태도’로 제시하였다. 이는 예술 교육의 정의적, 심동적, 인지적인 면들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둘째, 느낌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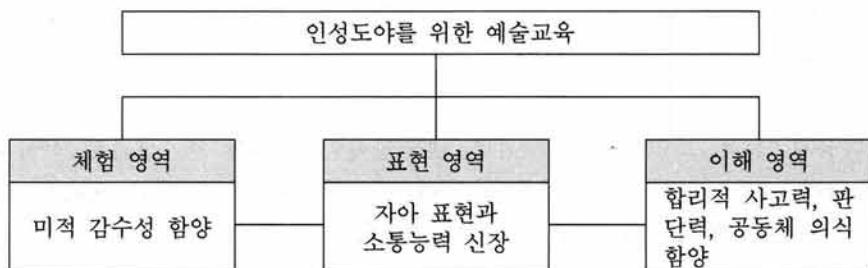
셋째,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예술을 생활화하여 합리적 사고력, 공동체 의식을 갖춰, 자신의 삶을 합리적으로 계발하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다.

선행연구(이화식, 2011)를 기반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예술교육의 목표를 분석하면 첫째 목표는 체험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미적인 감수성이라는 정서를 함양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생활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여 미적 감수성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둘째 목표는 표현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심동적 영역인 창의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표현된 매개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목표와 넷째 목표는 이해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인지적 능력인 판단력과 정의적 능력인 합리적 사고력, 공동체 의식 등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예술 행위나 예술품을 감상하고 그 속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과 예술을 생활화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합리적 사고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예술교육의 목표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성도야를 위한 예술 교육의 총괄 목표

3. 인성과 구성 요소

본 연구의 선행연구(이화식, 2011)에서 인성의 시대별·지역별 관점에 관해 논하고, 이러한 서로 다른 인성을 예술 교육을 통하여 도야할 수 있다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이화식, 2011)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으로 인성의 여러 가지 특성을 예술(음악과) 교육을 통하여 도야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인성 도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성의 요소를 추출해서 이러한 하위 요소가 예술(음악과)의 어느 영역에서 강화시킬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인성의 요소를 구체화시키는 연구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인성의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선행연구(허경철 외, 1994; 김아영 외, 1998; 박효정, 2000; Lickona, 1991; 孟子)와 비행청소년의 특수한 인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이애명, 1998)를 통하여 <표 1>과 같이 인성의 요소를 목록화하였다.

<표 1>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한 인성의 요소

연구자	요 소
허경철 외(1994)	- 공동체 의식 : 질서, 협동, 준법, 타인존중, 책임, 봉사, 정의감 - 기본생활습관 : 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청결위생, 물자절약 - 자아확립 : 근면, 성실, 자주, 정직 - 효도 : 기본예절, 효도
김아영 외(1998)	- 민주시민 의식 : 준법정신, 봉사정신, 협동정신, 책임감, 정의감, 애국심, 환경보호의식 - 자기존중 의식 : 자신감, 자아수용, 자기표현, 자기통제 - 타인존중 의식 : 권위의 존중과 수용, 예의범절, 효, 사랑, 배려, 정직, 신뢰
박효정 (2000)	- 경로효친 - 공공질서의식 : 준법의식, 공중질서 - 사회연대의식 : 나라사랑, 민족사랑, 인류애 - 생명존중 - 성윤리

연구자	요 소
	• 애국애족 • 절제 : 절약, 자기통제, 인내 • 정의 : 공정성, 용기, 민주성 • 정직 • 타인배려 : 친절, 봉사, 양보, 연민 • 평등의식 • 환경보호의식
Lickona, T.(1991)	• 도덕적 감정 : 양심, 자존, 감정이입, 선에 대한 애착, 자제, 겸손 • 도덕적 지식 : 도덕적 인식, 지적 도덕가치, 입장채택, 도덕적 이성, 의지 결행, 자각 • 도덕적 행동 : 도덕적 능력, 도덕적 의지, 도덕적 습관
孟子	• 측은지심(惻隱之心) • 수오지심(羞惡之心) • 사양지심(辭讓之心) • 시비지심(是非之心)
이애명 (1998)	• 낮은 성취성 • 안정성이 낮고 활동성 높음 • 지배지향성

인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인성의 덕목을 연구한 결과물이 많다. 하지만 그 내용들이 상호 유사하게 반복되거나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자는 가장 최근의 연구(허경철 외, 1994; 김아영 외, 1998; 박효정, 2000; Lickona, 1991)와 동양의 대표적인 철학인 유교의 인성(孟子)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인성의 요소를 추출하였고 비행청소년의 인성특성을 연구(이애명, 1998)한 결과를 종합하여 고봉중·고등학교에서 가져야 할 인성덕목을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다시 산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본 연구자는 ‘자기 영역’과 ‘타인 영역’으로 나누어 <표 2>와 같이 재분류하였다.

<표 2>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한 인성의 재분류

자기 영역	타인 영역
감정이입, 규칙적인 생활, 근면성, 낮은 성취성, 도덕적 지식, 성실성, 성윤리, 안정성이 낮고 활동성 높음, 자기 통제, 자아 수용, 자존감, 자주성, 적절한 자기표현, 정리 정돈, 정의감, 정직, 준법의식, 책임감, 청결위생, 친절, 합리적 사고, 환경보호의식	겸손, 공정성, 권위의 존중과 수용, 봉사, 사랑(이타적 사랑), 생명 존중, 타인 배려, 평등정신, 협동정신

Ⅲ. 인성교육을 위한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메리엄(A. P. Merriam, 1964)에 따르면 음악은 감정 표현, 미적 즐거움, 오락, 커뮤니케이션, 상징적 표현, 신체적 반응, 사회적 규범, 사회기관과 종교의식의 확인, 사회와 문화의 연속성에 기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가진다(Rudolf·David, 1997: 23). 인성교육을 위한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음악의 여러 기능들을 고려하여 음악의 영역을 체험, 창작, 이해로 구분하고자 한다. 체험은 나와 우리, 사회로 음악 활동을 확대하며 음악의 아름다움 경험하는 영역이다. 창작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창작하기, 감상하기에 알맞은 음악적 표현력을 계발하고 이를 즐기는 영역이다. 이해는 음악의 구성 요소와 원리를 인지적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음악 문화가 생성되고 향유되며 발전하는 것을 이해하는 영역이다. 음악과 교육과정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나 각각의 영역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이 다음 <표 3>이다.

<표 3> 인성교육을 위한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인성요소
체험	(1) 나와 음악 · 음악성과 창의성을 길러 생활 속에서 음악을 통해 나를 표현하는 활동을 즐기고 참여한다.	환경보호의식 생명존중, 도덕적 지식, 봉사, 사랑, 성윤리, 정의감, 소속감, 적절한 자 기표현, 자아수용, 타인배려, 공동체 의식
	(2) 우리와 음악 · 음악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함께하는 음악 활동에 참여한다.	
	(3) 사회와 음악 · 사회에서 음악의 가치와 기능을 이해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음악활동에 참여한다.	
표현	(1) 가창(노래 부르기) (가) 구성 요소와 원리 · 자세, 호흡, 발음, 발성 등 가창의 구성 요소와 그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부른다. (나) 기초기능 표현 활동 · 독창, 중창, 합창에 따른 소리의 어울림을 탐구하고 가창의 기초기능을 익혀 표현한다. · 다양한 시대, 종류, 문화권의 악곡을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노래 부른다. (다) 창의적 표현 활동 · 다양한 종류, 시대, 문화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노래 부른다.	자아수용, 자기통제, 청결위생, 친절, 규칙적인 생활, 근면성, 성실성, 적절한 자기표현, 준법의식, 자존감, 정직, 책임감, 공정성, 감정이입, 협동정신, 겸손, 타인배려
	(2) 기악(악기 연주하기) (가) 구성 요소와 원리 · 자세, 주법, 리듬, 음정, 음색 등 기악의 구성 요소와 그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연주한다. (나) 기초기능 표현 활동 · 독주, 중주, 합주에 따른 소리의 어울림을 탐구하고 기악의 기초기능을 익혀 표현한다. · 다양한 종류, 시대, 문화의 악곡을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연주한다. (다) 창의적 표현 활동 · 다양한 종류, 시대, 문화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연주한다.	

영역	내용	인성요소
	(3) 창작(음악 만들기) (가) 즉흥 표현 활동 • 음악을 읽고 쓰는 능력을 길러 음악을 노래, 악기 연주 등으로 즉흥적으로 표현하거나 재창조한다. (나) 작곡 • 다양한 소재와 음원을 표현 재료로 삼고 창작 과정에서 디지털 매체를, 음악형식에서 음악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해	(1) 음악의 요소와 원리 이해 •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를 이해한다. (2) 음악 문화의 이해 • 음악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한다. • 음악 문화의 생성과 향유를 이해하고 그 가치와 역할을 인식한다. (3) 음악 감상 • 음악을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듣고 분석하며 서술한다. • 다양한 시대, 종류, 문화의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비평한다.	합리적 사고, 자주성, 정리정돈, 권위의 존중과 수용

1. 체험 영역

음악과의 첫 만남은 체험이다. 음악에서의 예술적 경험은 예술작품 속 느낌과 표현에 대한 음악 체험이다. 일상적 경험과는 다르게 미학적 경험은 비현실적이고 지식과 감정이 섞여있다(Hoffe, 1993). 목적에 따라 음악 체험은 음악적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개념적 접근 방법), 연주자, 감상자, 작곡가가 되어 학습의 주체로서 직접 체험되기도 하며(경험적 접근 방법),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시도되기도 한다(이홍수, 1990: 145-172). 음악이 모든 인간 활동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며 인간 삶에서 순수하고 개인적 기능을 갖는 동시에 사회적인 상징 기능을 갖고 다르게 사용되는 까닭에(박유미, 2004: 232-235) 음악 체험 역시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다. 음악 체험의 사회적 성격과 관련하여 테이트(Tait)와 헤크(Haack)은 『Principles and Process of Music Education』에서 음악적 행동의 성격을 음악적 속성과 인간적 현상의 융합적 체험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음현상의 물리적, 형식적, 심미적 속성을 체험하는 것과 인간 현상의 삶과 내면적 인식이 융합하여 체험될 때 의미 있는 ‘음악적 체험’이라는 것이다(이홍수, 1990: 62-67). 체험은 체험에서 그치지 않는다. 음악학자 리머(Reimer)는 예술만의 특별한 경험인 심미적 경험으로 음악적 경험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학생이 자신과 타인을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삶의 질이 풍부해진다고 하였다(권덕원 외, 2008: 73). 개스턴(Gaston, 1968)도 음악 체험을 통해 계발되는 자신을 구체화하는 미적 감수성과 자기표현 작업이 자기표현 능력과 더불어 자기수용, 자아개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박유미, 2004: 232-236). 이홍수(1990: 113)는 음악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개인의 심미적 가능성을 최대한 계발하고, 음악교육을 통해서 음악 미적 본질의 체험과 정서의 순화, 창조성의 계발,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 협조성의 육성, 여가의 선용 등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는데, 음악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을 음악 체험에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음악 체험은 예술성을 경험하고 음악을 향유하는 것 이상으로 음악을 통한 인성의 도야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체험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래, 연주, 작곡, 감상, 분석, 평가 등의 영역 구분보다 나, 우리, 사회의 범주로 영역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비행청소년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와 스스로에 대한 인정 정도가 낮으며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능력이 미약하다. 애정과 보살핌을 받기 보다는 ‘의미 있는 타자’의 상실 또는 부재 속에 성장하여 관계형성능력도 부족하다. 일반학생에 비해 부족한 개인적, 가정적, 환경적 요인을 가지면서도 갈등을 해결하고 대처하는 데 불안정한 이들은 양적 질적 문화 예술 경험이 낮다(김준환, 2008: 8-11). 구체적으로 인성 교육을 위한 음악교육에서 비행청소년에게 나와 우리, 사회에서 접하는 다양한 음악적 역할(작곡가, 연주가, 감상가, 비평가, 음악학자

등)을 경험하게 한다. 비행청소년이 음악을 감상할 때 음악 구조의 역동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음악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감정을 유발하기도 하며 마음 안에 쌓여있는 감정도 발산하도록 돕는다. 음악에 의한 기분의 전도는 마음의 정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격려와 위안을 음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음악이 비행 청소년의 동감과 격려와 위안이 되어줄 때 이들의 자기 수용과 자기표현 능력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村井靖兒, 2003: 59-68). 코간(Kogan)은 음악이 집단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높이는 사회 참여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음악 체험 과정과 활동에서의 역동성이 학생들 간의 친밀감과 소속감을 보다 높이는데(Bruscia, 1998b) 사회에서 당연히 되는 가치와 이상에 대해 극단적 반감을 가지거나 수용하는 능력이 미흡한 소년원 학생들은 사회와 음악의 영역에서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음악 활동과 체험으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음악적 체험의 출발은 나이지만 그 범위를 우리와 사회로 확대해 나가면서 나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물론 환경 보호 의식, 생명존중, 도덕적 지식, 봉사, 사랑, 성윤리, 정의감 등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소년원 학생들은 음악 봉사(음악 연주 봉사)로 여성, 노인, 고아,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아프고 어려운 이들의 정서에 위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써 성윤리와 정의감을 형성하고 봉사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비행청소년이 사회 및 환경 관련 캠페인에서 합창, 합주를 맡아 음악활동을 한다면 환경보호의식과 생명존중의식도 함양할 수 있다. 더불어 비행청소년은 소속감과 정의감, 공동체 의식을 독려하는 음악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위한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 활동을 통한 사회 통합과 사회 참여에 동참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수준에서의 음악 체험은 사회적 소통 기능을 가지며 음악을 통한 정서적 공감과 통합을 이끈다.

2. 표현 영역

현대 음악학자 엘리엇(Elliott, 1995: 49)에 따르면 음악은 결과인 동시에 과정이며, '동적'인 '음악행위'이다. 인성교육을 위한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역동적인 영역인 표현은 가창, 기악, 창작의 세부 활동 영역으로 구별되는 데, 각 영역에서 엘리엇이 구분한 다섯 가지의 음악적 지식-과정적 음악지식, 형식적 음악지식, 비형식적 음악지식, 인상적 음악지식, 통제적 음악지식-이 통합적으로 쓰인다(권덕원 외, 2008: 83).

인성교육을 위한 표현 영역은 구성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는 활동과 기초기능을 익히는 표현 활동, 개인의 음악성과 창의성, 자발성을 펼치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과정은 연속적이고 위계적이다.

노래 부르기는 신체를 이용하므로 별도의 악기 구비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 음악 활동이다. 음악은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느낌으로 전달되는 직접적인 정서 경험이기 때문에 음악은 감정을 순화하는 정서 함양에 효과가 크다. 특히 합창은 학생들을 하나의 의지와 감정으로 결합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풍요롭고 밝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인성 교육에 좋다(강기성, 1976: 119). 또한 합창은 집단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활동성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Davison, 1951: 79). 노래 부르기는 본능적인 언어라고 본 코다이(Kodaly)는 합창을 할 때 한 사람의 잘못된 노래가 전체의 화음이나 균형을 얼마나 깨뜨리게 되는가를 체험하게 되면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울릴 때의 질서를 알고, 그 안에서 개개인의 책임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음색과 화성의 조화를 통해서 양보와 타협, 그리고 하나라는 의식 속에서 산출되는 조화와의 일치배울 수 있다. 노래의 아름다움은 다른 어떤 악기보다 심성에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개인의 인성 발달과 사회성 양성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조흥기, 2004: 129).

합창활동과 인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김문경(1992)은 합창에 참여와 경험의 정도가 높은 남학생은 그렇지 못한 남학생에 비해 지배

성, 지도력, 주동력, 과업 수행력이 높으며, 합창에 참여와 경험의 정도가 높은 여학생은 그렇지 못한 여학생에 비해 사회성, 협동성, 대인순응성, 자신감이 높다고 밝혔다. 이윤미(1998)도 합창단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활동성, 지배성, 사회성, 자율성, 사려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선임(2005)은 합창은 무엇보다 전체 속에서 자기 역할의 중요성을 배우고 집단을 통해 자기 표현하면서 일체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럼으로써 충동적, 도발적, 파괴적일 수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배려가 있는 인간미를 가진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대(2002)는 합창을 통해서 외향적인 학생은 통제심, 공격적인 학생은 공격성을 절제하며 배출하는 습관을 훈련시킬 수 있으며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여 심리적 안정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합창은 보편성을 지닌 음악활동으로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대인관계와 만남을 이끈다고 하였다. 김숙조(2007)는 합창은 협동심과 사회성을 길러주고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며 청소년 개개인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인격적으로 존중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인성 변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비행청소년은 동년배들에 비해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에 미숙한 경우가 많은데 메리엄(Merriam, 1964)과 개스턴(Gaston, 1968)에 따르면 음악 활동은 그 자체로 의사소통의 역할을 한다. 음악은 개인적 수준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전달하는 데에서 나아가 속해 있는 문화에서 합의하고 있는 상징적 의사 표현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우리와 음악의 영역에서 음악을 통해 소통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다.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서 겪는 또래집단에서의 대다수 갈등이 소통과 관계있음 고려할 때 음악을 통한 소통 능력 신장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에서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음악은 구성원들에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이상을 표현한다(Radocy·Boyle, 1997: 22-32). 말과 노래가 다른 것은 가창이 갖는 고유한 음악적 표현 형식, 즉 자세, 호흡, 발음, 발성의 요소 때문이다. 따라서 아름답게 노래 부르기 위한 원리와 기초기능 표현을 몸으로 익히려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자질이 필요한 데, 이를 통해 자아수용, 자기통제, 청결위생, 규칙적인 생활의 인

성 요소를 배운다. 신체 발달 단계 상 10세 이상의 학생들은 화음 감지력이 크게 향상된다. 다른 학생의 목소리와 조화로운 질서를 이뤄야 하는 중창과 합창 활동은 음악적으로 하나됨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과 소통이 이루어진 인간관계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단체 생활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어 나가는 법을 배우는 데 이로써 친절, 타인배려, 적절한 자기표현, 협동 정신, 겸손의 인성 요소를 기를 수 있다.

악기 연주하기는 악기와 제반 환경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변성기를 겪고 있어 가창이 부담스러운 사춘기 학생들과 악기 고유의 음색과 주법에 매력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음악 활동이다. 게다가 기악은 가창이나 감상 활동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준다. 전문적인 악기 외에도 음악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도구를 악기로 쓸 수 있는데 악기 연주 활동은 신체적 조건을 넘어서 음악적 표현 영역이 확장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기악 앙상블이나 합주는 악기를 통한 확장된 음악 표현으로 연주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준다(권덕원 외, 2008: 169-171). 홍승연(2009)도 합주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현방안 연구에서 제한된 시간적, 공간적, 인적 한계로 학생들의 연주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감수성은 증진되고 풍부한 음악적 표현과 창의적 표현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악기의 종류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바른 연주법을 습득하여 합주를 해냈을 때 협동과 배려를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의 의식적인 안내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악기를 선택하여 합주에 참여했을 때 이를 통해 일체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상대방의 소리와 앙상블을 이루며 질서와 협동, 타인존중의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다. 예컨대, 타악기 연주를 통해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데, 타악기를 통해 강한 공격 성향을 리듬으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Slotoroff, 1994). 루이스(Louise)와 에드가(Edgar, 1998)도 리듬을 강조하는 타악기 연주는 자기표현을 이끌고 공격성과 적대감을 감소시켜준다고 하였다.

악기는 재료와 연주법에 따라 그 종류가 많고 악기마다 음색이 다양한데, 인성교육을 위한 음악교육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와 기질, 취향에 적합한 악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주체적인 악기 선택은 표현 활동을 위한 동기를 유발한다. 신체 발달 단계 상 10세 이상의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악기 조작에 능숙해진다. 가창에 비해 기악은 기술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청감각과 음악성 발달이 더딘 학생들도 표현력 있는 독주와 중주, 합주를 할 수 있다. 중주와 합주 활동을 통해 배려, 적절한 자기표현, 협동 정신, 공정성의 인성 요소도 기를 수 있다. 악기마다 고유한 자세, 주법, 표현을 이해하고, 원리와 기초기능 표현을 익히는 근면하고 성실한 수련 기간 동안 학생들은 음악작품과 감정이입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악기 연주로 표현하는 자질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규칙적 생활, 감정이입, 겸손, 자아수용, 자기통제를 키워준다.

가창과 기악 모두 표현력을 가지려면 장기간 느낌과 기술을 탐구하고 다듬어야 하는데 이는 근면성과 성실성, 정직, 책임감, 공정성의 인성요소와 연관된다. 근면하고 성실한 수련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자신 고유의 목소리 자원을 가지고 개성 있고 창의적인 가창 표현 능력을 얻었을 때 얻는 만족과 기쁨은 학생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가창과 기악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재곡은 합목적성, 음악 교육적 유용성, 타당성과 전이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인성에 적합하지 않은 가사를 가진 가창곡은 노래 부르면서 학생의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악곡의 구조와 형식이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학생들이 배우는 수준과 내용에 적합한지, 악곡을 통해 음악성과 인성의 향상을 가져오는지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이흥수, 1990:127-134). 비행청소년에게 추천할 만한 제재곡으로 19세기 후반 이전의 협화음이 중심이 되는 조성 음악, 화성의 진행이 자연스러운 화성 음악, 극단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가락과 리듬, 빠르기의 악곡, 가사가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악곡 등을 들 수 있다. 비행청소년은 감정 조절이 어렵고 끈기 있는 성실한 태도를 갖추지 못했을 경향이 있다. 이들이 가창과 기악의 표현을 익히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살펴 학생 내면의 의지와 욕망을 표현 동기로 이끌어 내어 학생이 표현과 창작의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음악 만들기는 즉흥 표현, 작곡 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자기표현의 기회가 가장 큰 활동이다. 음(音)을 매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곡 활동은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능력이자 길러지는 능력이다. 음악을 만드는 즉흥적 경험은 첫째,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채널을 형성하고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가교의 역할을 한다. 둘째, 자기표현과 정체성 형성을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셋째, 타인과 관련한 자아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한다. 넷째, 대인 친밀감의 역량을 발달시킨다. 다섯째, 집단과 함께하는 기술을 발달시킨다. 여섯째, 다양한 구조적 수위에 따른 창의성, 표현의 자유, 즉각성 및 유쾌성을 개발한다. 일곱째, 감각의 자극 및 발달을 일으킨다. 여덟째, 지각적 인지기술을 발달시킨다. 또한 작곡 활동은 첫째, 조직 및 기획력을 발달시킨다. 둘째, 창조적 문제 해결 기술을 발달시킨다. 셋째, 자기 책임감을 증진시킨다. 넷째, 내면의 경험 기록 및 전달 능력을 발달시킨다. 다섯째, 가사를 통한 치료 주제를 모색함을 증진시킨다. 여섯째, 부분을 전체로 통합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Bruscia, 1998a: 146-147, 150). 비행청소년의 창작 활동은 결과보다 과정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음악을 만드는 것은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 음악을 읽고 쓰는 능력,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전제한 표현 활동이다. 창작 활동에 임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자아개념이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은 대다수의 비행청소년에게 결과물의 질적 수준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혹은 ‘해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에 희열을 느끼며 부정적이고 손상된 자아개념을 회복해나갈 것이다(석문주 외, 2006: 181-189). 창작 과정에서 대중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창작 동기가 고취되고 부족한 자원에서도 다채롭고 화려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김미숙, 1994). 또한 창작 과정에서 사용하는 음악 형식으로 종합 예술인 음악극을 활용하면, 미술, 무용, 문학, 연극 등 다른 예술과 관련 속에서 통합적으로 음악을 다루는 경험과 능력을 줄 수

있다(이은경, 2003). 이러한 표현 활동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자기표현, 감정이입, 준법의식, 자존감을 격려하고 성장시킨다.

3. 이해 영역

이해 영역은 ‘음악의 요소와 원리를 이해’와 ‘음악과 문화의 이해’, ‘음악 감상’으로 구성되어진다.

‘음악의 요소와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음(音)의 속성과 음이 만들어 내는 음악적 질서와 체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보드만(Boardman)에 의하면 음악 개념은 음색, 셈여림, 아티클레이션, 리듬, 선율, 화성, 조직의 7가지 부분적 요소와 형식, 표현성, 시간성과 공간성의 3가지 총합적 요소로 나뉜다(권덕원 외, 2008: 272-274). 음악 요소와 원리는 논리적, 합리적 사고와 접근으로 이해되는데 비행청소년 학생들은 이를 통해 논리적,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음악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음악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음악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생성되고 향유되었으며 발전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호). 비행청소년은 기성세대들의 전통과 권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다. 이를 고려하여 교사는 학생들이 전통 음악 문화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음악사 수업을 통해 권위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음악을 다룸으로써 흐트러진 음악 현상들을 연결된 흐름으로 정리 정돈하는 것을 배우며, 그 결과 음악 문화에 대한 자주성, 주체성을 높인다. 한국음악사, 동양음악사, 서양음악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루기보다는 학생들이 관심 갖는 음악 사상이나 음악가, 음악제도, 음악의 주요 쟁점, 음악 문화 등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비행청소년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집중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비행청소년은 이해 영역을 통해서 체험과 표현 영역의 경험을 다시금 정리하여 내면화할 수 있다. 체험과 표현 활동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토론하고 과정 중의 느낀 의문을 제시하며 스스로의 음

악경험을 평가할 수 있다(Hanser, 1999: 110-111).

‘음악 감상’은 소리에 대한 인지(awareness), 구별(discrimination), 감수성(sensitivity)을 발달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드만(E. Boardman)은 모든 음악 활동에서 음악을 듣는 것은 항상 병행되는 활동이라고 보고, 감상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listen)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사고하고 집중하여 듣는 것(describe)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석문주 외, 2006: 141-143). 음악 감상은 감정 기억과 연관되는 뇌의 부분과 공명하는 비언어적 매개체로서 해소되지 않는 분노, 두려움, 슬픔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Radocy·Boyle, 2009). 비행청소년은 정서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감정을 억압하고 있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악 감상 활동을 통해 감정 해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음악치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상 기법으로, 투영적 감상(Projective Listening)도 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음악을 듣고 자유롭게 자유 연상으로 말 또는 글로 나타내거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음악을 행동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도되거나 유도되지 않는 상상을 통해 음악을 이미지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다(Bruscia, 1998a: 152-156). 미적 체험의 깊이를 좌우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 감상물의 수준과 이를 체험하는 감상자의 역량이다. 따라서 교사는 감상물의 수준을 학생에 맞게 선별하고 조정해야 한다. 감상 악곡의 기준으로 과거의 음악적 경험, 악곡의 길이와 복잡함의 정도를 고려하고 다양한 양식과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악곡이 익숙한 후에야 비로소 깊이 있는 감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악곡을 선택한 후에는 반복하여 감상하여 악곡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석문주 외, 2006: 144-145). 비행청소년은 표면적이고, 감각적인 감성을 자극하는데 익숙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준 높은 감상일수록 깊은 사고와 몰입을 통해서만 미적 체험이 가능하다.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교사는 감상 악곡의 수준을 조정하고 낮은 감상 악곡을 친숙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체험 과정을 거친 감상 활동은 비평을 통해 완성된다. 비행청소년은 일반학생에 비해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표현 방법에

서툼과 타인의 감정 이해에 미흡하다는 것을 교사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학생 간 자유로운 비평이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은 나와 다른 비평 속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나의 생각을 서술하는 과정은 감정을 순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 체험한 것을 표현하고 서술함으로써 음악적 사고와 상상력, '나'의 주관적 기준에서 음악을 서술하는 표현력을 기른다. 이들이 다양한 종류, 시대, 문화의 음악에 공감하면서 얻은 다름에 대한 존중은 협동정신, 겸손, 타인 배려 정신을 형성한다.

VI. 결 론

1. 요약

이번 연구는 예술프로그램이 인성에 바람직하게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이화식, 2011)에 대한 후속연구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예술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술프로그램은 크게 미술, 음악, 연극, 무용으로 선정하였고 이번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음악과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음악과의 내용 체계를 크게 대영역과 중영역, 그리고 소영역으로 설정하였고 소영역은 활동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대영역은 체험과 표현, 이해로 나누었는데, 앞으로도 모든 예술과 교육과정을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다.

체험은 다시 '나와 음악', '우리과 음악', '사회와 음악'으로 나누었다. 음악 체험을 통해 개인적 수준에서 자아수용, 자기체험, 자기표현을, 사회적 수준에서 타인배려, 소속감, 정의감, 봉사, 성윤리, 환경보호의식, 생명존중, 공동체의식, 도덕적 지식 등을 배울 것이다.

표현은 다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중영역으로 나누고 '가창', '기악'의 소영역으로 '구성 요소와 원리', '기초기능 표현활동', '창의적 표현활동'을 두었다. '창작'은 '즉흥표현활동'과 '작곡'으로 나누고, '감상'은 '미적체험'과 '비평'으로 나누었다. 표현활동은 합창과 합주를 통하여 자기통제, 청결위생, 친절, 타인배려, 협동정신, 겸손, 근면성, 성실성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작과 감상 표현 활동을 통하여 개성 있는 자기표현, 감정이입, 자존감 등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는 '음악의 요소와 원리 이해', '음악 문화의 이해'로 나누고 음악적 언어 및 요소를 합리적 사고로 이해하며 역사적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자주성, 정리정돈, 권위의 존중과 수용 등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2. 제언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중·고등학교에서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예술교육 중 음악 교과가 가지는 인성 도야의 역할과 기능이 비행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는 전제 하에 일반계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음악과 교육과정보다 인성교육적 측면을 강화한 음악과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법무부 산하의 소년보호기관으로서 중·고등학교의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고봉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음악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일반 교육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연구를 기대한다. 청소년 시기의 일탈 행위로 비행청소년으로 분류되었지만 그들 또한 사회의 일원이며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국가인력으로 성장할 인재이다. 이들이 비행청소년으로 낙인 찍혀 사회의 그늘에 주저앉지 않도록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로 다시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재 비행을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는 일반학교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수정된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수정된 음악과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인성 지도와 음

악 교과 지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음악과 교육과정을 위한 두 가지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을 위한 음악과 교육과정과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선 많은 연구에서 인간의 감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음악이라고 연구되었다. 현재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재는 활발히 개발되고 있고 비행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재로 2006년 3월 법무부 보호국에서 발간한 「비행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 집단지도」와 「비행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 집단상담」 등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인성교육과 음악교육이 서로 결합되고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지식의 전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활에서 음악을 체험하여 자연스럽게 인성을 지도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학교에서나 인성교육 특성화 학교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을 위해 음악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는 ‘교육음악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는 음악영역의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음악 활동을 인성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는 인성 도야나 정서 도야라는 큰 아젠다를 수립하고 아젠다에 맞는 음악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연극교육’과 ‘교육연극’의 개념이다. 연극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행위(교육)를 우리는 ‘연극교육’내지 ‘교육연극’이라 한다. 이것은 연극+교육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의미상에서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인 ‘연극교육’은 연극 활동에 주안점을 둔다. 다시 말하면 연극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연극영화과나 대학의 연극영화과에서 가르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하지만 후자인 ‘교육연극’은 연극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행하는 것이다. 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전인교육 차원에서 교육적 수단으로 연극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육음악가’ 양성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기성 (1975). **대중음악과 학교음악교육**. 부산: 부산교육위원회.
- 교육인적자원부 (1997).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1997-15호.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개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호.
- 권덕원 외 (2008).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김문경 (1992). 중학생의 합창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숙 (1994). 음악교육에서 대중매체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음악논단**, 8, 183-206.
- 김숙조 (2007). 청소년들의 인성변화를 위한 합창지도 모형 개발.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준환 (2008). 비행청소년의 인성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소년원 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 박유미 (2009). **음악심리학의 이해**, 서울: 음악춘추사.
- 박은미 (2007). 청소년의 인성형성에 대한 음악감상교육의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 교육대학원.
- 석문주 외 (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경기도: 교육과학사.
- 엄덕순 (2001).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오상규 (2006). 음악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상규·김원중 (2007). 음악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사회성, 교육 관계 및 대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2), 513-232.
- 이영대 (2002). 학교에서 합창활동의 기능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윤미 (1998). 학교 합창단 학생과 일반학생과의 인성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경 (2003). 음악극을 활용한 통합적 중등 음악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택희 (1988). **합창론**. 서울: 서울기독교음악사.
-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이화식 (2011). 소년원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성격과 목표 연구. **조형교육**, 39, 181-210.
- 임은정 (2004). 음악활동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자신감 및 회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선임 (2005). 중 고등학생의 합창 활동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흥기 (2004). **코다이 음악교육**. 서울: 세광출판사.
- 홍승연 (2009). 합주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현방안 모색. **음악교육공학**, 9, 231-244.
- 홍정수 외 (2008). **두길 서양음악사 1, 2**. 서울: 나남출판사.
- 村井靖兒 (1995). **音樂療法の基礎**. 김승일 역(2003). **음악요법의 기초**. 서울: 삼호뮤직.
- Bruscia, K. E. (1998a). *Defining Music Therapy*. 최병철 역 (2010).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
- Bruscia, K. E. (1998b). *The Dynamic of Music Psychotherapy*. Gilsum, NH USA: Publishers Baelona.
- Davison (1951). *Choral composition*. Combridage: Harvard university press.
- Elliott, D. J. (1995). *Music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odman, N. (1976). *Languages of Art : An Approach to a Theory of Symbols*. 김혜숙 외 역 (2002). **예술의 언어들-기호 이론을 향하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Grout, D. J. et al. (2006). *A History of Western Music Seventh (ed)*.

- 민은기 외 역 (2009).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서울: 이앤비플러스.
- Hanser, S. B. (1999) *The New Music Therapist's Handbook*. 정영조·박민영 역(2009) 음악치료 어떻게 하나?. 서울: 중앙문화사.
- Hoffer, C. R. (1993).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2nd Edition*. 안미자 역 (2001), 음악교사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Kaser, V. A. (1993). Musical expressions of subconscious feelings: A clinical perspective. *Music Therapy Perspectives*, 11(1). 16-23.
- Louise, M. & Edger, E. C. (1998). Effects of active versus passive group music therapy on preadolescents with emotional, learning, and behavioral disorders. *Journal of Music Therapy* 35(1). 49-67.
- Miller, H. M. (1978). *Introduction To Music -A Guide To Good Listening*. 양일용 역(2010). 음악감상을 위하여. 서울: 태림출판사.
- Ray R. & Allen W. (1992). *The Choral experience : literature, materials, and methods*. 허윤 역 (2000). 합창문헌. 서울: 교보문고.
- Rudolf, E. R. & Boyle, J. D. (1997).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최병철 외 역 (2009). 음악심리학. 서울: 학지사.
- Slotoroff, C. (1994). Drumming technique for assertiveness and anger management in the short-term psychiatric setting for adult and adolescent survivors of trauma. *Music Therapy Perspectives*, 12(2). 111-116.

ABSTRACT

The Study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Development of Applied Music in the Gobong Middle and High School: A Subsidiary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Kwon, Hae-In
Lee, Hwa-Sik

This study's purpose was to follow "The Study of the Character and Purpose of Art Program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Reformatory School (Lee, Hwasik, 2011)" and to present the curriculum of music for character education in 'the Gobong Middle·High School' which is a subsidiary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curriculum of arts character education is divided four areas; art, music, dance, and drama. Among them, this study focuses on curriculum and teaching of music. This study's purpose needs to extract the elements of character education and to cultivate these elements. that so music systems divide into experience and representation, understanding area.

key words: The Gobong middle·high school, character education, curriculum of music, integrated cross-curriculum subjects.

투고일: 9월 30일, 심사(수정)일: 10월 25일(11월 6일), 게재확정일: 11월 20일